

무너진 경계에서 사물의 잔해를 향하는 회고적 시선

박예나의 작업에서 우리는 사물을 본다. 창조물이라고 보다 사물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이유는 인간의 손을 거쳐 쓰임을 가지고 있던 사물들을 발견하여 사용하거나(〈과정을 위한 구조〉, 2015), 용도를 담은 사물에서 그 흔적을 가진 형태를 취하거나(〈무엇이 되지 않기 위한 형태〉, 2018), 잔해로 남은 건축의 부스러기를 공들여 3D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포스트-퓨처 그라운드〉, 2020-), 사물의 허물을 수집하듯 남겨 쌓기도(〈발굴〉, 2023, 〈몸들의 땅, 미지의 신화〉, 2022) 하기 때문이다.

이중의 세계, 그 균열에서의 상상

그의 작업에서 마주하는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쓸모를 다 한 쓰레기와 같은 사물로 즉, 잔해이자 그 집적물인 폐허로서의 사물이며 하나는 디지털 세계로 옮겨지거나 만들어져 영생을 얻은 듯 보이는 영원성의 존재로서의 사물이다. 이 상반된 두 사물의 양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폐허인 때조차 사물은 작가가 만들어 낸 현재와의 접촉으로 구체성을 다시 획득하기 때문이다.

〈포스트-퓨처 그라운드〉의 경우, 작가는 잔해를 3D 모델링하여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우주 공간에 아카이빙 된 잔해를 관람객이 클릭하면 본래 위치했던 시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때에 영국의 글라스고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한산해진 거리에서 그는 잔해를 주웠고 그 사물을 우주공간 형태의 온라인 전시 공간으로 옮겨 아카이빙했다. 그 사물은 그가 마주했던 글라스고의 시공간의 좌표로 남았고 디지털 이미지를 클릭하는 우리와 다시 접속하며 기억된다.

반면 《하스팟 베이스캠프》(2023)의 사물은 인간의 생산물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스스로 생겨난 비물질 생명체로서의 사물이다. 그들은 우리의 손을 떠나 있고 인간에 속하지 않는다. 박예나는 문명 이후를 상상한 가상의 세계관 ‘아티얼리즘(artialism)’과 조물주로서의 인간이 제거된 주체적 사물인 ‘아티젝타(artijecta)’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은 그들을 탐색하고 ‘진실’을 마주할 탐색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 창조와 내러티브의 생성이 동시대 예술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장르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는 해도 매튜 바니(Matthew Barney)의 세계관이나 미디어 아티스트로 불리는 많은 예술가들이 세계관과 내러티브를 창조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예나의 작업이 구분되는 지점은 그가 사물에 대해 보이는 태도 내지 시선이다. 사변적 실재론이라 불리는 오늘날 철학의 흐름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퀴탕 메이야수 (Quentin Meillassoux)는 오늘날 인류에게 유의미한 사고 실험의 하나로 ‘과학 밖 소설’이라는 장르이자 개념을 제안했다. 박예나의 작업을 마주하며 그의 과학 밖 소설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것은 박예나가 만들어 내는 세계관이 기술에 예민한 예술가로 매체를 실험하는 방식이기보다 오늘날의 세계를 검토하는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메이야수는 SF소설이라고도 불리는 과학소설과 과학 밖 소설을 구분하면서 과학소설이 “전대미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 보이고 그렇게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변화”시키지만 “그 가능성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건 간에 과학의 범위 내에 머무르는” 반면 ‘과학 밖 소설’은 실험과학이 불

가능한 세계를 개념화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 그리고 메이아수를 비롯한 사변적 실재론, 객체지향 존재론의 논거들이 사물 내지 객체의 질서를 재구조화하고자 할 때 이들의 논의 저변에는 현재의 문제적 지구를 인간 내지 인간의 근대적 논리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있다. 이러한 반성의 사유를 고려해 보면 데이터 로만 구성된 세계에서 어떠한 창조물이 생겨난다는 박예나의 상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학의 논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물에 대한 다른 사유를 요청하는 일종의 사고 실험 내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너무도 인간적인 우리 세계의 형태를 담아 디지털 세계를 일구었다. 산업화의 시대 사물은 인간의 물리적 신체에 근거해 만들어졌고 그러한 사물은 딱히 필연성 없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진다. 우리는 애써 그 공간을 실제 공간과 같은 3D로 구성하고 위와 아래를 정한다. 박예나의 인간 없는 사물들의 세계는 그러한 의미에서 논리 바깥 세계의 탐구이자 이중의 세계에 대한 다른 반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도래한 미래에 관한 회고적 시선

박예나는 재개발이 한창인 김포에서 건축 폐자재를 모아 폐허를 실제로 구현하기도(《중첩되는 세계》, 2021)하고 사물의 허물로 잔해를 만들기도(《밭굴》, 2023, 《몸들의 땅, 미지의 신화》, 2022), 실제에서 연원하기는 하나 디지털 형태로 아카이빙하거나(《포스트-퓨처 그라운드》), 디지털 사물을 창조(《핫스팟 베이스캠프》)하기도 한다. 사물에 대한 접근이 사뭇 달라 보이지만 이들에 공통되는 것은 사물에 대한 회고적 시선이다. 《핫스팟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중고 가구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을 듯한 낡은 가구들로 구성된, 연대를 가능할 수 없을 듯한 어느 연구자의 실험실을 마주한다. 이러 저러한 장비들로 꽉 차 있지만 그 책상과 도구들이 우리에게 자아내는 느낌은 데이터의 중요성이라기보다 그가 탐구하는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간성의 느낌이다. 여기서 100년 쯤 전에 또 다른 잔해를 바라보면서 한 사상가가 남긴 단상을 인용해 본다.

파울 클레(Paul Klee)가 그린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씌우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 을 두고 하는 말이다.²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가 소장하였다고 하는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에 대한 단상의 형태로 새로운 시대관의 요청을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 남겼다. 박예나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

1 쾨팅 메이아수, 『형이상학과 과학 밖 소설』, 엄태연 옮김, 이학사, 10-12쪽 참조.

2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339쪽(강조는 저자가 원문에서 이탤릭으로 강조한 부분).

서 벤야민의 이 구절들이 떠오른 이유는 베를린, 파리는 20세기 전환기의 유럽의 수도들을 회고하면서 사물의 이면을 탐구하고자 했고 양차 대전 사이 혼돈 기의 유럽에서도 구원의 사유를 전개하고자 한 벤야민의 세계에 대한 태도가 박예나의 태도에 공명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진보는 100년 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달라진 기술 발전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폭풍에 예외 없이 더 강한 속도로 떠밀려 간다. 박예나가 수집한 잔해들, 디지털 세계에서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폐허는 재개발 중인 김포, 코로나 19 중의 글라스고, 한국 산업화의 중심지였지만 쇠락한 을지로에 발을 딛고 있었다. 또한 을지로가 위치한 중구는 쇠락한 중심지임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박예나가 '아티얼리즘'의 진실을 마주하도록 초대하는 무료 와이파이가 가장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밟던 땅과 이중의 세계를 구성하는 가상의 세계, 그 이중의 잔해를 마주 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유는 무엇일까? 작가가 열어 놓는 그 균열의 틈은 상상의 형태를 빌리고 있지만 그렇게 잔해를 마주하는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 낸 여운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기를 요청하는 듯하다.